

## ‘발롱도르’ 또 너냐?

메시-호날두 등 후보 30명 발표... 기자 투표로 결정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축구선수 최고 영예인 발롱도르(Ballon d'Or) 후보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발롱도르를 시상하는 프랑스 축구전문지 '프랑스풋볼'은 25일(한국시간) 올해 최고의 활약을 보인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 후보 30명을 발표했다. 2008년부터 이 상을 주고받은 메시(5회 수상)와 호날두(3회 수상)가 올해에도 경쟁을 예고하며 후보에 포함됐다.

메시의 팀 동료인 네이마르와 루이스 수아레스, 호날두의 팀 동료인 게리스 베일 등도 후보에 들어갔다. 세르히오 아궤로와 케빈 데 브루인(이하 맨체스터시티), 피에르 에머릭 오바메양(도르트문트), 앙투안 그리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첫 수상을 노린다. 2016-2017시즌을 앞두고 파

리 생제르맹에서 맨체스터시티로 이적한 즐라탄 이브라모비치도 후보로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선정 방식이 바뀌었다.

프랑스어로 '골든볼'을 뜻하는 발롱도르는 프랑스풋볼이 1956년부터 시상했지만, 2010년부터 FIFA와 프랑스풋볼이 함께 수상자를 뽑았다. 그동안 축구기자단과 각국 대표팀 감독·주장의 투표로 결정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발표한 23명의 후보 중에 최종후보 3명이 결정되고, 이 중에서 수상자가 선정되는 방식이었다.

올해부터는 축구 기자들의 투표만으로 수상자가 결정된다. 또 후보 수가 23명에서 30명으로 늘었다. 최종후보자 3명은 발표되지 않는다. 투표에서 각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이 배제된 것은 올해부터 프랑스풋볼과 FIFA의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잃어버린 4년’ 잃어버린 감 찾는다



KIA 타이거즈의 사이드암 손영민이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피칭 훈련을 하고 있다.

재도약 꿈꾸는 KIA 손영민

공 던지는 데는 문제없어

실전 감각 살리는데 집중

KIA의 사이드암 손영민이 일본에서 부활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얼마 전 미국 애리조나에서 교육리그를 소화한 손영민은 요즘 마무리 캠프로 건너가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손영민은 오는 31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작되는 마무리 캠프를 위해 챔피언스필드에서 '캠프 조'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입으로는 "힘들다"를 연발하면서도 몸은 쉬지 않는다. 아니 쉬 수가 없다.

마운드를 떠나있던 지난 4년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이를 악물고 훈련을 소화해야 한다. 손영민은 신진급 선수로 구성된 캠프 선수단의 마운드 '만형'이기도 하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손영민은 차근차근 마운드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일단 지난봄 팀에 합류했을 때보다 몸무게를 10kg 이상 줄였다. 무엇보다 실전 무대를 위한 감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는 지난 8월13일 롯데전을 시작으로 올 시즌 4차례 퓨처스리그에 등판했다. 4경기에서 3.2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쳤지만 있고 있던 마운드의 느낌을 떠올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손영민은 애리조나 교육리그에서 본격적으로 감 살리기에 나섰다. 미국팀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마운드에 익숙해진 손영민은 숙제를 안고 돌아왔다. 내년 시즌 손영민의 모습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숙제다.

손영민은 "공을 던지는 부분은 똑같았던 것 같다. 하지만 오래 야구를 쉬면서 내 몸 상태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게 고민이다. 운동을 하다 보면 한번 컨디션이 떨어졌다가 올라오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를 할 수 있는 몸 상태에 대한 감이 떨어져 있다. 이럴 때 한번 컨디션이 떨어지면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다. 경기를 할 수 있는 몸 상태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공을 던지는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다. 감각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은 있다. 이를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시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손영민의 이야기다.

손영민 "오래 쉬었기 때문에 훈련이 쉽지는 않다. 그래도 팀에서 동료와 함께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마음은 편하다. 올 시즌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회열 2군 감독님 등 팀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다. 마무리 캠프에서 우선 체력적인 부분부터 신경을 쓰면서 완벽한 몸을 만들고, 좋은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승환 NL 신인왕 투표 5위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미국 스포팅뉴스가 선정하는 내셔널 리그 신인왕 투표에서 5위를 차지했다. 스포팅뉴스는 25일(한국시간) 신인왕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 매체는 1946년부터 자체 투표로 신인왕을 선정했다. 그만큼 권위가 있다. 오승환은 3표를 얻어 5위에 올랐다.

1위를 차지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유격수 코리 시거와는 격차가 컸다. 시거는 143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시거는 1995년 노모 히데오 이후 21년 만에 스포팅뉴스 선정 신인왕에 오를 다저스 선수가 됐다.

트레이 터너(워싱턴 내셔널스)가 15표로 2위, 일본인 투수 마에다 겐타(다저



스)가 6표로 3위를 차지했다. 트레버 스토리(콜로라도 로키스)는 오승환보다 2표 많은 5표를 얻어 4위에 올랐다.

오승환은 미국 진출 첫해인 올해 76경기에서 6승 3패 19세이브 14홀드 평균자책점 1.92를 기록했다. 세인트루이스는 오승환을 '올해 팀 최고의 불펜 투수'로 평가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오승환의 이름이 빛났다. /연합뉴스

황희찬-잘츠부르크 재계약... 2020년까지

축구 국가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던 '무서운 막내' 황희찬(20)이 소속팀인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잘츠부르크와 계약을 연장했다.

잘츠부르크는 25일(한국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황희찬이 2020년 6월까지 구단에서 뛰게 됐다고 밝혔다.

황희찬은 "잘츠부르크와 계약을 연장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감독과 구단 전체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선수로서 발전하기 위해 잘츠부르크에서의 환경이 이상적이라고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항제철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오스트리아로 건너간 황희찬은 지난해 2부 리그 FC리퍼링에 임대됐고, 31경기



서 13골을 뽑아내는 활약을 펼쳤다. 잘츠부르크로 복귀한 황희찬은 22경기에서 3골을 기록했다.

황희찬은 2016 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저돌적인 돌파로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발휘하며 8회 연속 올림픽 본선진출에 공헌했다. 차세대 스트라이커로 기대를 모은 황희찬은 리우 올림픽 대표를 거쳐 월드컵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북한 2017년 새 리그 출범... AFC컵 출전 추진

북한이 새로운 배대의 자국 축구리그를 출범하고, 국제 클럽 대항전에 자국 클럽을 파견할 전망이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4일(한국시간) "지난주 북한 평양에서 AFC컵 대회 출전 자격과 관련한 클럽 자격을 놓고 워크숍을 열었다"며 "워크숍에는 북한 내 44개 구단 단장들이 참석했다. AFC는 이 자리에서 AFC컵 대회 출전 자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AFC컵은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 클럽 축구대회다. AFC 소속으로 주로 축구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국가의 클럽들이 참가한다.

아시아 최고 클럽을 가리는 AFC 챔피언스리그와는 다르다. 그동안 북한은 월드컵 등 국가대항 축구 국제대회엔 대표팀을 파견했지만, 클럽팀은 출전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 내부에서 축구 등 스포츠에 관한 정책이 바뀌었고, 국제 축구 클럽 대회 출전을 추진하고 있다.

AFC는 "AFC컵에 참가하려면 2개

유스팀을 보유해야 하고 팀 닥터, 물리 치료사, 소속 선수들의 정식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북한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AFC컵 참가에 앞서 내년까지 새로운 프로리그를 설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클럽의 기량을 끌어올리고 국제대회 출전에 필요한 부분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AFC는 "북한이 2017년 3개의 디비전으로 나누는 새 리그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은 스포츠, 특히 축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우선 대표팀 사령탑으로 노르웨이 출신 예르 안드레센 감독을 선임했다. 그의 연봉은 최소 십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외화가 들어가는 해외 평가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의 축구투자가 스위스 베른에서 자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